

삼락농정 핵심사업 가시적 성과 내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최고... 협치 농정체계 정착·중앙 공모사업 38건 2129억원 확정 등

전북도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 농민·농업·농촌 핵심사업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공모사업들에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경쟁력 제고' 중심의 농업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농민·농업·농촌' 중심으로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농민이 참여해 만든 '삼락농정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협치 농정체제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농정 거버넌스인 '전라북도 농생명연구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참여기관간 기술정보·소통교류 및 국가 R&D과제 발굴 등 시스템 정착을 이뤘다.

또한 지난 2013년(3,086만원) 대비 2015년(5,260만원) 농가소득 증가율이 17%로 9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사업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도입은 여성농업인 가사부담 해소 및 문화·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추진하는 등 삼락농정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됐다.

농업·농촌분야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과 정치권의 협조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신설을 확정하고, 바다의 날 행사 유치 등 정부기



도의회 송년행사 전북도의회는 14일 의원총회실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임정영 의정회장 등이 참석해 송년행사를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관 및 대규모 행사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농축수산물식품부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도 친환경 농자재지원 사업과 농산시책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농산시책의 경우 12년만에 다시 정상의 영예를 안았고, 행복마을 콘테스트 평가에서도 장관상을 수상했다.

도정 3대 핵심사업인 삼락농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농생명분야 내년 국가예산도 기재부와 정치권에 대한 꾸준한 노력으로 소스산업화센터 67억원과, 농생명 ICT 테스트베드 구축 15억원, 군산수산물병센터 청사 신축

7억원, 위도 뉴시관광형 다기능 여항 개발 59억원, 비응향 정온도 개선사업 40억원 등을 확보했다.

각종 중앙 공모사업은 11월말 현재 총 38건에 2,129억원(국비 1,38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그중 50억원 이상 대규모 공모사업 8건이 선정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농생명산업 본격 추진을 위해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과 함께 종자산업의 메카 기반을 조성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개소로 본격적인 식품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제14회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 19개국 기업참여와 관람객 15

만명과 25만달러의 수출계약 등 성공적 성과를 거뒀다.

전북도는 내년에 삼락농정이 농업인과 도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삼락농정 핵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농정 거버넌스가 시·군까지 확대되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승구 농축수산물식품국장은 "삼락농정의 핵심은 민·관 협치로, 농업인과 함께 인내하고 노력하면서 주요 농정 현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해 가면서 대표 농정 거버넌스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만 65세 이상 대상

전북도는 겨울철 노년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폐렴증과 뇌수막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폐렴구균은 콧물이나 기침할 때 튀는 분비물로 전파되는데, 이로 인한 감염증은 통상 11월부터 이

듬해 4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폐렴구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되며, 노년층의 경우는 폐렴증 등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60%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65세 이상 노인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익산식품클러스터1단계’ 내년 준공 예정

‘진입도로 확장’ 공정율 21% 그쳐

2019년까지 공기 연장 우려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1단계’가 내년 준공계획이나 ‘진입도로 확장’은 지난해만 128억원 배정 등 예산확보는 순조로우나 수용재결과 공타 등을 한다며 허송해 현 공정율이 21%에 그치고 공사비를 반납하거나 예산배정 차질로 2019년까지 늦춰질 수 있어 입주기업 불편과 기업유치 우려가 현실화했다.

익산국토청은 2013년 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공사를 확정해 그 해 6월부터 실시계획을 추진했는데 국비로 총 425억원 가량이 투입되며, 군도 19호 2.7km(웅남마을 입구-삼아실크)은 2차로에서 4차로로, 지방도 722호 1.4km구간(익산IC-산단입구)은 4차로에서 6차로로 총 4.1km가 확장된다. 여기에는 총 236필지 11만여㎡ 토지

가 들어가 소유주들이 반발하자 국토청은 지난해 5월19일 재결신청, 8월25일 수용재결(수용이 결정됨), 10월13일 공타, 10월21일 등기접수를 거치는 과정에서 89%가 협의매수에 응하고, 11%만 최종 공타금을 공타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했다.

이 때문에 공타이 완료된 10월13일 이후에 공사가 가능해져 11월부터 토공을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돼 현 공정율은 21%에 그쳐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준공은 물 건너 갔다.

특히 지난해 배정된 128억 중 보상비 58억, 감리비 4억원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 65억 중 42억을 반납했고, 올해 배정된 84억원과 내년예산 88억을 합쳐도 전역예산만 무려 196억에 달해 2019년까지 공기연장이 우려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김제 오리농가서 AI 항원 검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도내 서부권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정읍시 소성면의 한 육용오리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김제시 공덕면에 소재한 육용오리농가에서도 'AI H5' 항원이 검출됐다.

공덕면의 이 농가는 약 2만5000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출하 전 검사에서 H5항원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역당국은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하고 이동통제 등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AI의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모임금지, 발생 시군 방문 금지 등 방역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도내 안전사고 사망자, 전년비 10.4% 감소

76명 감소한 657명... 인프라 개선·자살 고위험군 지속적 관리가 효과 발휘

도내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도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도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10.4%, 76명이 감소한 65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분야별로 교통 32명(240명, △11.8%), 자살 38명(376명, △9.2%), 갑염병 11명(26명, △29.8%)이 각각 감소했다.

특히, 주요 4대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과 자살사고 사망자는 2013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각종 인프라 개선 및 자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 해 11월 지역안전지수가 처음 공개된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한 교통·화재·자살·감염병 등 4대 분야의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 관련부서, 14개 시·군,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추진 T/F팀'을 즉각 구성하고, 3년간 총 23개 사업에 939억원을 투자하는 분야별 이행계획을 지난 1월에 확정·발표했다.

이를 견인하기 위해 전북도는 그 동안 6차례의 T/F팀 회의를 통해 분기마다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현황

및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협업체계를 발굴하는 등 도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안전에 취약하고 개선이 시급한 곳의 시설개선과 함께,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은 물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체험훈련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도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 도 우리 지역의 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우신포그먼트, 익산 3산단에 2공장 준공

무기안료 국내 1위 업체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주)우신포그먼트가 제2공장 신축을 완료하고 14일 정현을 익산시장, 회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주)우신포그먼트는 지난 2013년에 제3일반산업단지 2만2,523㎡ 부지에 익산 제1공장을 준공해 현재 가동 중으로, 이번에 당진공장 익산 이전을 추진하여 9,563㎡부지에 제2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익산시대를 열게 되었다.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총 190억원, 고용인원은 35명에 이른다.

(주)우신포그먼트는 1977년 설립하여 30년 넘게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기 및 유기안료, 염료 등을 전 산업분야에 공급,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친환경 무기안료 생산량 국내 1위 기업이다. 현재 국내의 500여개 기업에서 우신포그먼트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안료시장의 40~50%를 점유하고 있다. 안료(pigment)는 분말형태의 착색제로 도료·인쇄·잉크·그림물감·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주)우신포그먼트는 이날 준공식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 1,0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이전으로 당진공장 근무자의 익산시 전입에 따른 인구증대 효과와 신규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